



박소현의 섹.시.토크

봄날의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친구 K는 작은 방에서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쭉히 서서 시간을 만지를 뒤집어쓰며 일을 했을 것이다. 목이 말라 잠시 방 밖으로 나온 그녀는 집 안을 휘감는 기분 나쁜 고요와 그것을 움켜

“손양과 놀아나고 있더군.” “손양? 그게 누구야? 누구네 집안까지 끌어 들였대? 네가 옆방에 있는데도 버젓이 들어오나니, 보통내가 아니구나.”

혼자 흥분해서 침을 튀기는 친구 C를 우리는 모두 안팎에서 쳐다보았다.

“너, 손양 모르니?” “어머! 어머! 니들도 아는 예야? 누구네? 누구네 나만 몰라?”

C의 호들갑에 결국은 터지는 웃음보. “누구긴 누구야, 손양이 손양이지, 네 팔에 달려있는 손 말이야, hand!”

그제야 ‘아’하는 얼굴에 이어 어이없다는 C의 표정.

“첵, 그러니까 마스터베이션 중이었던 말이구나.”

“자위가 좀 고독한 행위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라고 손양이라고 이름 붙여 주는 거지, 손양이 개입하니까 좀 예로틱하지 않냐?” “그럼 여자한테는 손군이야?” “손씨도 괜찮고, 닥터 손도 나쁘지 않네.”



“마도로스 손은 어때?” “아, 이리나 손씨 종친회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어때, 손을 손이라 하지 그럼 발이라고 하냐?”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동안 웃지 않는

사람은 K 뿐인 것을 우리는 한 바자 늦게 눈치 채고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야?” “너 같으면 안 심각한겠어? 마누라가 옆방에 버젓이 있는데 왜 손양이라 놀아나고,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저러나 있어서 그날 이후로 밥이 안 넘어가더라.”

손양과 놀아나고 있더군... 내가 투박한 남자 손보다 못한 존재인가 싶어... 여보, 백짓장도 맞들면 낫대

하긴 그럴 만 하다. 내가 투박한 남자 손보다 못한 존재인가 싶어 부부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올 수도 있겠다. 거기다 옆방에 와이프를 두고 굳이 와이프 상상을 하면서 흥분했을 리도 만무하니, 마음속은 다른 여자 따위니 차치했을 확률이 크다. 그렇

다고 내놓고 ‘왜 자위 하나’고 화를 내는 것도 무슨 일이라 친구는 그냥 모른 척 문을 닫고 말았다.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거고, 기본 나쁜 건 기본 나쁜 거잖아. 뻣속까지 내 남자라고 생각한 적 없었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목격하니깐 쓸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구.”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내가 손군과 놀아나는 건 괜찮아도 남편이 손양과 즐기는 건 못 봐 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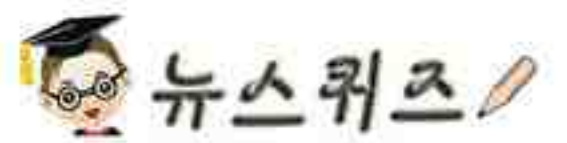
“그래도 나는 남편을 옆방에 두고 그러진 않아. 그건 예의 문제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정 손으로 하고 싶으면 마누라 손을 이용하던지.”

“그러게, 백짓장도 맞들면 낫대던데..” 한 친구의 어이없는 속담 인용에 다시 웃음보가 터졌다.

“맞! 다음에 남편이 또 그러거든 슬그머니 문 열고 들어가면서 그래 봐, ‘여보, 백짓장도 맞들면 낫대.’”

부부관계에도 상부상조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닐까? 물론 남편의 손양이 상부상조 정신을 좋아할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연애 칼럼니스트>



64. 미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한국인 1호 타자인 이 선수가 고향 구단인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KIA는 최근 이 선수와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 5천만원, 옵션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쇼이’로 불리며 메이저리그 통산 363경기에 출장해 홈런 40개 등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한 이 선수는 누구 일까요?

- ① 최희섭 ② 박찬호 ③ 이병규 ④ 이승엽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용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음 4월 2일 壬子)

36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48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60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수는 없다. 72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없는 대화와 사립스런 자녀를 살펴보라. 84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37년생 욕심은 화를 부르니 소탐대실 하지마라. 49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61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73년생 건강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85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검토는 자세하게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4, 38

38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 50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6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성한다. 74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결과 속이 꼭 찜다. 행운의 숫자 : 17, 29

39년생 가정의 힘은 식탁에서 나오니 주부는 음식에 힘을 쓰라. 51년생 방탕한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63년생 가계는 국가경제로 통한다. 75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가니 칭찬을 자주 하라. 행운의 숫자 : 08, 37

40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러우니 입을 조심하라. 52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64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76년생 이상 보다 친구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 09, 36

41년생 과도가 높으니 대고 예상한다. 53년생 모든 일에 불행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65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77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07, 40

42년생 할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54년생 직장을 포로로 삼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 66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78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 32

43년생 재시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55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67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라 생각되면 좋은 일이다. 79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4, 45

44년생 할조자가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니 주의하며 지내라. 56년생 사기문서에 속상할 수니 물바로 처신하면 면할 수 있다. 68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80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 24, 25

45년생 구사가 괴롭거나 큰일은 아니다. 57년생 의무의 일이 가정에까지 소란사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69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하리라. 81년생 확실한 전진으로 꼭 성취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45

46년생 살사일어하면 마음은 없으리라. 58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점이 솟아난다. 70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82년생 예인이 불만이다. 행운의 숫자 : 05, 26

47년생 좌 조심 사람조심, 59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71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니 불평한 사람이 같이 있다. 83년생 자신과 가정 사이에 불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family and contact information.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MBC가 지난 15일부터 방송하는 휴먼다큐멘터리 시라즈가 인기다. 지난 15일 열매가 되고 싶은 키 120cm의 윤선아씨 이야기를 다룬 ‘엄지 공주, 엄마가 되고 싶어요’를 방영한데 이어 16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준호씨의 사연을 담은 ‘안녕 아빠’를 내보냈는데,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으며 모두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네티즌 울린 눈물의 휴먼 다큐 ‘안녕 아빠’

과정을 그렸다. 중국 언론에 보도된 등 위에 10cm길이의 날개 한 쌍이 달린 고양아와 아프리카 기니 해안에서 발견된 괴생명체도 ‘바다 괴물’이라는 별칭으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리는 네티즌들도 잇따랐다. 오는 29일 현역으로 입대하는 탤런트 서지석,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에서 베드신을 촬영했다는 한 채영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6천여개 기업의 급여소득자 45만여명의 연봉을 알아볼 수 있는 ‘임금정보시스템’과 광주 미술인 1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미술 대전 비리, 미국에서 호텔 사장인 백만장자 재미사업가와 재혼한 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공개한 탤런트 서우림 등도 화제가 됐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적 패션지 보그 표지 모델로 나서는 송해교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game between Kim Kwang-sik (White) and Kim Young-su (Black) on a 19x19 board.

제16회 광양일보 배양기 요소 4보(44~59)

백 김광식 5단 (주 송림) / 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김영수 5단은 수비가 기질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손익을 떠나 흑▲로 공격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김광식 5단도 동류다. ‘참고도’처럼 가볍게 백 1로 머리를 내밀고 3으로 요소를 점령하면 흑이 실속이 없어보이는데도 굳이 4로 붙여 흑 49로 실리의 요소를 빼앗기고 있다.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집짓기 보다는 상대 돌과 부딪치는 근접전 때 힘을 낸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바둑소식

이창호, 왕중왕전 8강 합류

이창호 9단이 17일 한국기원 바둑 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서 이영구 6단을 239수 끝에 흑 2집 반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이창호 9단은 최철한 9단-오규철 9단의 대국승자와 격돌한다. 앞서 열린 대국에서 안조영 9단은 흑 5집 반으로 최규병 9단을 제압, 8강에 진출했다. 이 대회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되며, 우승자는 2단, 준우승자는 1단의 특별승단혜택이 주어진다. 전기 우승, 준우승자와 주최사 추천 2명은 왕중왕전 직행티켓을 확보한다.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07>

English lesson content for 'I'm sure this one will suit you' with multiple choice options and a short dialogue.

오하오유 니혼고 <907>

Japanese lesson content for '何の本を読んでいるんですか?' with multiple choice options and a short dialogue.

니하오 쑹구위 <98>

Chinese lesson content for '你在美国的时候工作吗?' with multiple choice options and a short dialogue.

한자 이야기 <524>

Chinese character story content for '명鏡止水 (명경지수)' with a short story and explanation.